



공속민특위

- 제23-03호
- 발행인: 의장 손 덕 헌
- 발행처: 선전실
- 발행일: 2014년 8월 29일(금)
- 전화: 052)287-6541~2
- 배포확인: 사업부대표 이 주 우

현장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노동해방투쟁

통상임금 해결없이 14년 단체교섭 종결없다!



쌍용차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노조에 제시
(종합)



한국GM, 쌍용은 모두 적용! 현대차만 똥배짱!

2014년 단체교섭이 시작되기도 전 윤여철 부회장은 언론을 통하여 통상임금을 줄 수 없다고 선전포고하였다. 17차 교섭동안 사측은 아직도 똥배짱이다. 같은 완성차인 한국GM과 쌍용도 적용이 되었고 작은 부품사도 소급분(3년치)까지 합의하였다.

사업장	기존 상여금	통상임금 기본급화	적용시기	비고
한국GM	700%	700%	4월 1일	
쌍용	800%	800%	3월 19일	
부품사 A	750%	600%	8월 1일	
부품사 B	800%	400%	1월 1일	소급분 3년치 지급
부품사 C	800%	800%	4월 1일	
부품사 D	490%	490%	6월 1일	
부품사 E	800%	600%	4월 1일	

사측이 통상임금을 소송에 따르자는 것은 안주겠다는 것!

조합원의 평균연령이 47세이고 불과 3, 4년만 있으면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매년 퇴직을 하게되는 상태에서 퇴직후 조합원 임금을 누가 책임지는가?

년도	2014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
인원수	441명	506명	517명	748명	1,007명

이번 제시안에 ‘소송시점 재직자 적용’ 문구가 있지만 공문구에 불과하다. 10년 뒤에 판결이 난다면 그때가서 퇴직자를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불법파견 소송도 10년이 걸렸다. 소송에 따르자는 사측의 꼼수는 자연감소 인원이 빠져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도 불파처럼 10년이 걸린다면 적용대상자는 엄청나게 줄어들것이고, 사측은 그만큼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것뿐이다.

월 40만원 인상 효과, 8/8로 가면 효과 미미, 지금 합의해야만 하는 이유!

지난 교섭에서 사측은 통상임금에 대해 임금체계 분과위를 통해서 연구 논의하자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제시했다.

폐인 돈은 하나도 못주겠다고 하고, 적용에 대해서는 연구하자고 한다. 도대체 무슨 연구가 필요하단 말인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시 통상시급의 인상효과는 8,300원이다.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무와 휴일특근, 심야할증 외에 년월차 수당, 월급제의 경우 OT26%, 기술직의 경우 상여금 계산 시 OT30시간, 안전교육과 조회시간이 포함된다. 월급여 인상효과는 400,000원 정도가 된다.

항목	금액	통상시급	계산근거
월할 상여금	1,859,874	8,229	1,859,874원(상여금100%×750%÷12개월) ÷ 226시간

2013년 문용문 집행부는 임금시효가 3년인 관계로 주간연속2교대 전 3년(2010년 3월~ 2013년 3월)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을 하였고 현대차의 임금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어 주간연속2교대전 임금구조는 통상임금이 전체임금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에 따라 3년치 미지급 통상임금은 조합원 개인당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또한, 주간연속2교대 후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1년5개월의 미지급 임금 또한 발생된 상태이다.

구분	월 금액	년 금액 (년월차 포함)	비고
10/10 근무시 통상임금	1,652,824	21,605,088	월 특근 2회(17시~08시)
8/9 근무시 통상임금	472,673	7,647,036	월 특근 2회

이제 8/8로 가게 되면 잔업 특근이 없어지므로 적용 효과는 미미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단체교섭에서 반드시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쟁대위 정신바짝 차려라! 추석 전 타결에 연연하지 말고 강력히 대응하라!

사측의 똥배짱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은 쟁대위의 투쟁전술이다. 추석전 마무리를 하겠다더니 강력한 투쟁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파업하고 집중교섭, 6시간 파업하고 집중교섭을 하는게 말이되는가? 최소한 투쟁시기에 돌입하면 2시간, 4시간, 6시간으로 파업수위를 높여가며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내놓을 것을 강제해야 하거늘, 파업의 효과는 없이 사측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지금의 투쟁 전술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9월에 접어들어서도 또 집중교섭을 하자고 하니 도대체 집행부의 의중을 알수가 없는것이다. 교섭을 결렬했다면 시원하게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 계속 집중교섭이라는 이름으로 끌려다닌다면 아무런 이득도 없이 사측에 놀아나게 될 것이다. 이경훈 집행부는 추석 전 타결에 연연하지 말고 황소 똥심으로 대차게 밀어부쳐 14투쟁 요구안 100% 관철하라!

부당해고·손배가압류·징계·고소고발 철회는 민주노조의 근간이다!

현장활동가 탄압 = 현장활동 위축 = 현장권력 강탈 = 현장은 창 살 없는 수용소



147억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지금까지 발생된 부당해고와 손배, 징계, 고소고발의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 사측에게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측만 오로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3, 4대집행부에서 손배가압류를 철회시키지 못하면서 사측은 특하면 손배와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동지들에 대한 손배를 제외한 현재까지 사측이 제기한손배가압류 소송 총액이 147억여 원이 된다. 이런 손배와 징계해고, 고소고발의 근본적인 원인 (비정규직투쟁, 안전사고 합의서 위반, 라인가동 시 일방적 용접 작업 등) 제공자는 분명히 사측이다. 사측은 2014년 단체교섭에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부당해고,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징계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그리고 5대집행부도 손배가압류, 해고, 고소고발, 징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동조합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각골명심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라.

손배배상 소송 (민사)			
울산	김철환, 박성락, 강성신	11, 8, 29	90억
	허성관	11, 8, 29 / 14, 1, 20	10억
	김광언	11, 8, 9 / 14, 1, 9	10억
	엄길정	11, 8, 9 / 13, 11, 27	20억
	허성관	13, 3, 26 / 13, 8, 21	1억3백
	엄길정, 박성락	13, 5, 14 / 13, 10, 4	3억
	엄길정, 박성락, 장윤덕	12, 12, 12	2억
	엄길정, 박성락, 장윤덕, 김철환	12, 12, 12	2억
	엄길정, 박성락, 장윤덕	12, 12, 12	1억
	박현재, 박상철	13, 7, 17	-
	엄길정, 김철환	13, 7, 30	1억
	강성신, 김태곤	13, 7, 23	-
	박성락, 김철환, 윤실근	14, 6, 16	3억8천
아산	김영상	-	1천2백
	최순민	-	2천4백
전주	정상철, 최창영	14, 6, 27	8천2백
	주상우	14, 7, 16	9천2백
	박성철	14, 7, 16	1억2백

	울산	전주
고소고발 (형사)	백운호, 김태곤	강만석, 김부현, 김남곤, 최창영 정상철, 서동환, 주인구, 이상길, 김호성

	남양	아산
고소고발 (형사)	하영철	전해진, 장연구, 정태영, 김영상 최순민, 이우철, 김종한

사측 제시한 ‘노사 미래발전 전략’은 빗줄은 개살구! 하이비스 설치만 강요!

8월 26일 제시한 사측의 ‘노사미래발전전략 관련 별도 합의’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해 현장통제 수단인 하이비스 설치를 일단 ‘선적용하고 후보완’ 하자고 하고 있다. 지난 주간연속2교대때도 ‘선시행 후보완’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해놓고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하이비스에 대해서도 ‘선적용 후보완’을 이야기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특히 설비개선 공사는 10년내에 완료한다는 공문구만 남발하면서 줄 것은 다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이런 사측의 제시안은 4만 7천 조합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측은 제시안 즉각 철회하라!

‘임금체개개편위원회’ 구성은 임금 유연화 및 3교대 꿈수로 비정규직 양산하자는 독소 조항!

사측이 교섭장에서 제시한 ‘임금체개 개편위’는 올초부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던 성과 연봉제와 맞닿아있다.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처리하면서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임금을 유연화하기 위한 성과연봉제나 성과급제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마당에 3교대까지 하는 안을 만들어서 상시 야간조를 만들자는 것은 기존 ‘노사전문위’를 통해 수차례 노동조합에 요구하였던 것을 집행부차원에서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막아왔던 것이다. 교섭장에서 제시안으로 났다는 것 자체가 사측의 안하무인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사측은 제시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4년 임투승리와 ‘전문연구직제 쟁취’를 위한 남양위원회 쟁대위원 울산투쟁

지난 25일(월) 남양위원회 쟁대위원들은 지지부진한 14년 임투 완전승리와 남양위원회 별도요구안인 ‘전문연구직 쟁취’를 위하여 쟁대위원 전원이 월 차결의를 하고 교섭이 이루어지는 본관앞 집회를 통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박영학 의장과 이경훈 지부장은 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집회에 들어서 “전문연구직제 쟁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통하여 전문연구직제 쟁취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남양에서는 쟁대위원 명의로 “전문연구직제 완전쟁취없이 14임투 끝내지 않는다”라는 현수막을 본관 주위에 걸고 사측에 대한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한편 남양위원회는 쟁의찬반투표에서 81%의 역대 최고 찬성률로 쟁의를 결의하여 전문연구직제 쟁취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정비 월급제 합의 반복한 사측 각성하라! 생산성 향상에 발목잡혀 꿈썩도 못하고 있나?

정비직군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서 십수년동안 ‘제도 개선위’ ‘단일 호봉제’ ‘직급제 폐지’ 등 숱한 투쟁을 통해 2013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는 합의서까지 만들었지만 시행은 안되고 있다. 올해 단체교섭에서 정비직군 직군통합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산성 향상 방안’이라는 사측의 논리에 휘둘려 원래의 취지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조합원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사측이 직급체계를 통합하지 않고 누렸던 이익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면서 임금 차별로 인해 손해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HMS 직군의 설움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까지 임금체계를 관리해온 사측은 책임이 없고 임금 차별 받은 것은 생산성과 관련해서 당연하다는 논리는 교섭장에서 ‘정비는 전문인력이 아니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현장을 모르고 정비를 무시하는 사측의 위원들에게 더 이상 휘돌이지 말고 월급제 반드시 쟁취하자!